

[발표 2]

빈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발달지표 비교연구

이용교(광주대)

I. 연구목적

빈곤 청소년의 발달 지표를 조사하고, 이를 일반 청소년의 발달지표와 비교하여, 빈곤 청소년에게 적합한 청소년복지정책을 개발한다.

2. 연구방법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개발한 '청소년발달지표'로 빈곤 청소년의 발달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 청소년의 발달지표 수준과 비교 연구한다.

본 연구자는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15개소 1318 해피존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300명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44명으로 전체의 48.0%이고, 여학생이 156명으로 전체의 52.0%이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옛 한국청소년개발원)이 당초 계획보다 조사연구가 늦어져서 현재 자료수집 중이다.

양 통계치를 비교하면 빈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의 발달지표를 분석할 수 있지만, 비교집단인 일반 청소년의 발달지표에 대한 자료수집이 늦어지면서 비교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

2007년 연말까지는 두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빈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발달지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빈곤 청소년의 발달지표에서 영역간의 특징만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3. 주요 결과

- 1)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은 자아개념(1~5번), 행복감(6~8번), 목표지향성(9~11번)으로 파악되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계산하였다. 빈곤 청소년 자아개념의 평균은 3.07점이고, 행복감은 3.03점으로 보통수준이다. 목표지향성은 3.43점으로 자아개념과 행복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다소 그렇다"에 미치지 못한다.

<표 1>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빈곤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3.12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2.79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9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2.95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3.32			
6)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29			
7)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2.51			
8) 나는 사는 게 즐겁다	3.29			
9)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3.26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3.41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61			
전체 평균	3.16			

2)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은 창의성(1~4번),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5~8번), 문제해결능력(9~13번)으로 파악되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창의성의 평균은 3.55점이고, 자기주도 학습준비도는 3.41점으로 '보통과 다소 그렇다'의 사이에 있지만, 문제해결능력은 2.83점으로 보통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2>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빈곤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보다는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3.18			
2)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	3.49			
3)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3.76			
4)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3.76			
5)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3.67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2.89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3.67			
8)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3.39			
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2.98			
10)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2.85			
1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2.88			
1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2.64			
13)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본다.	2.82			
전체 평균	2.95			

3)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신뢰감(1~4번)과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5~11번)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신뢰감의 평균은 3.0점으로 보통이지만, 개별 지표 중에서는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가 2.60점으로 매우 낮았다.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의 평균은 3.07점으로 ‘보통’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통이하이지만,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란 항목에서 3.64점을 얻어 평균치를 조금 높인 셈이다.

<표 3>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빈곤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3.23			
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3.25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2.60			
4)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2.92			
5)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에게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2.75			
6) 나는 친구들과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2.98			
7)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3.01			
8)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3.06			
9)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3.00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3.05			
11)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3.64			
전체 평균	3.04			

4) 시민적 역량은 인권의식(1~4번), 국가에 대한 태도(5~7번), 국제화의식(8~9번), 공동체의식(10~11번), 사회참여의식(12~16번), 건전한 소비의식(17번)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평균은 3.7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이지만, 국가에 대한 태도는 3.55점이고, 국제화의식은 3.55점이며, 공동체의식은 3.31점으로 ‘보통과 다소 그렇다’의 중간지점이었다. 사회참여의식은 3.03점으로 보통수준에 그쳤다.

<표 4>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

	빈곤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3.90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3.93			
3)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45			
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83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3.19			
6)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3.51			
7)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3.96			
8)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3.72			
9)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3.37			

	빈곤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 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3.00			
11)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3.62			
12)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2.91			
13)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 보내기)	2.92			
14)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3.11			
15)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3.13			
16)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청소년음악의 밤, 박물관 견학 등)	3.16			
17)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3.43			
전체 평균	3.42			

5)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역량은 진로선택의 주도성(1~3번), 직업적 특성이해(4~6점), 진로준비 행동(7~10번)으로 측정되었다. 청소년의 진로선택 주도성의 평균은 4.0점으로 '다소 그렇다'이지만 직업적 특성이해는 3.53점으로 '보통과 다소 그렇다'의 중간수준이고, 진로준비행동은 2점 만점에서 1.34점으로 5점 만점 환산시 3.34점으로 보통에 가깝다. 즉 청소년이 진로선택의 주도성은 좀 있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5>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역량

	빈곤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4.12			
2)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4.06			
3)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3.82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39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72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49			
7) 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1.36			
8) 나는 지난 1년 동안 관심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1.23			
9)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1.51			
10) 나는 지난 1년 동안 방과후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1.25			
전체 평균(만점을 5점으로 환산시)	3.60			

4.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청소년 발달지표'를 통하여, 주로 도시 빈곤지역과 농산어촌에 있는 1318 해피존을 이용하는 남녀 중고등학생 300명을 조사하였다.

연구목적은 빈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발달지표를 비교연구하려고 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7년도 조사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양자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면 비교연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빈곤 청소년의 발달지표를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그리고 진로 및 직업역량으로 파악하였다.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의 평균은 3.16점, 인지적 특성은 2.95점, 사회적 역량은 3.04점, 시민적 역량은 3.42점, 진로 및 직업역량은 3.60점으로 나타났다.

빈곤 청소년의 발달지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거나 '보통과 다소 그렇다'의 중간지점에 있었다. 특히 인지적 특성이 낮은 것은 한국사회가 인지교육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진로 및 직업역량'도 진로선택의 주도성은 좀 있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발달지표를 비교하여 빈곤 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한 청소년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할 때 위에서 발견한 사실과 함께, 청소년의 지역환경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 빈민지역과 농산어촌에 사는 청소년의 생활이 상당히 다르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은 농산어촌에 비교하여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지만, 양극화 현상으로 계층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농산어촌은 전체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기존 청소년복지시설과 인력을 연계하여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농산어촌에는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